

## 01

〈보기〉의 ㄱ~ㅁ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ㄱ. 이어져 있는 얼굴의 표면을 ‘이마, 볼, 턱’ 등으로 끊어서 말한다.
- ㄴ. 중세 국어에서는 ‘벌거하다’이었던 말이 현대 국어에서는 ‘벌겅다’로 변화하였다.
- ㄷ. 우리말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ㄹ. ‘사과를 나는 익은 좋아한다 빨강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에 어긋난다.
- ㅁ. 현재 표준어에서 ‘고구마’라고 하는 식물을 제주도에서는 ‘감저’, 전라도에서는 ‘감자’라고 한다.

- ① ㄱ: 언어는 연속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표현한다.
- ② 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 ③ ㄷ: 언어에는 일정한 체계가 존재한다.
- ④ ㄹ: 언어는 규칙에 맞게 구성되어야 온전히 쓰일 수 있다.
- ⑤ ㅁ: 언어에서 음성과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 02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가) ‘ㄷ, ㅌ, ㄹ’의 음운만을 가지고 ‘다, 라, 달, 단, 띳’ 등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
- (나) 기존에 있던 형태소들을 이용하여 ‘누리꾼, 심쿵’ 등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다) 한정된 어휘 자원과 문법 구조를 통해 ‘나는 어제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이 태극권을 하는 꿈을 꾸었다.’와 같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① 실제하는 연속적인 세계를 분절적으로 표현한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변화한다.
- ③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 ④ 기존 언어 자원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언어 형식이 만들어진다.
- ⑤ 언어의 음성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05

〈보기〉의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음운의 변동은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음운을 비교하여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뉜다. 이 중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가 가장 일반적이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변동이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유음화: 'ㄴ'이 유음 앞이나 뒤에서 유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경음화: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 구개음화: 경구개음이 아닌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 앞에서 경구개음 'ㅌ,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①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읽만[임만]'을 들 수 있다.
- ②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웃도[온뜨]'를 들 수 있다.
- ③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줄넘기[줄림끼]'를 들 수 있다.
- ④ ㉠, ㉡,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낮빛[난뵙]'을 들 수 있다.
- ⑤ ㉠, ㉢, ㉣이 모두 일어나는 예로 '살살이[산싸치]'를 들 수 있다.

## 06

〈보기〉의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간의 말이 단모음인 경우,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모음의 변동은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는 변동,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변동,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변동 등으로 나타난다.

- ① '오- + -아'가 [와]로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② '가- + -아라'가 [가랴]가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③ '꼬- + -어'가 [깨]가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④ '기- + -어'가 [기여]가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⑤ '피- + -어서'가 [피:서]가 되는 것은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 07

## 언어의 특성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일반적으로 언어는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예컨대, '家'에 해당되는 개념을 국어에서는 '[집]'이라는 음성으로 표시하는데, 왜 하필 '[집]'이라는 형식으로 이 개념을 나타내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자의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서로 관련성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도상성'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적 재료의 양과 비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복수의 개념은 단수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 표현에도 나타나 '집 : 집집마다', '아이 : 아이들'과 같이 개념의 복잡성과 언어 형식의 길이가 비례하여 나타난다. 이외에도 ㉠~㉣이 도상성을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 눈, 물 : 눈물
- ㉡ 나무 : 소나무
- ㉢ 먹다 : 먹었다, 먹겠다
- ㉣ 가다 : 가지 않다
- ㉤ 어디 가? : 어디 가십니까?

- ① ㉠: 복합어는 단일어보다 복잡한 개념을 나타내므로 언어의 형식이 길어졌다.
- ② ㉡: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언어의 형식이 길어졌다.
- ③ ㉢: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보다 복잡한 개념이므로 언어의 형식이 길어졌다.
- ④ ㉣: 부정은 긍정보다 복잡한 개념이므로 언어의 형식이 길어졌다.
- ⑤ ㉤: 공손성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언어의 형식이 길어졌다.

# 08

## 자음 체계

'영호의 자음 분류'에 적용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의 자음은 크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 즉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 즉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파열음과 파찰음은 다시 그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영호의 자음 분류:    ㉠    ㉡    ㉢

- ① ㉠은 적용하지 않고, ㉡과 ㉢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 ② ㉡은 적용하지 않고, ㉠과 ㉢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 ③ ㉢은 적용하지 않고, ㉠과 ㉡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 ④ ㉠과 ㉢은 적용하지 않고, ㉡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 ⑤ ㉡과 ㉢은 적용하지 않고, ㉠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 09

## 음절의 개념과 특성

〈보기〉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음절은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이다. 현대 국어의 음절은 다음과 같이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오, 이, 야, 워'처럼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 있다. 둘째, 초성과 중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는데 '또, 모, 과, 벼'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암, 울, 악, 안'처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다. 넷째,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포함된 음절이 있는데 '범, 뿔, 폭, 형' 등이 그 예이다.

- ① 모음은 항상 중성에만 올 수 있구나.
- ② 하나의 음운으로만 이루어진 음절도 있구나.
- ③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는 못하는구나.
- ④ 이중 모음만으로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 ⑤ 어떤 음절이든지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구나.

## 10

## 비분절 음운의 개념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데, 음운은 다시 음소와 운소와 나눌 수 있다. 운소는 분절 음운에 얹혀 실현되고 분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라고도 한다. 비분절 음운에는 장단이 있다. 장단은 한국어 단어에서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모음의 길이이다. 장단은 ':' 기호로 표시하는데, [말]과 [말:]은 각각 '말(馬)'과 '말(言)'을 뜻하는 것으로 구별 가능하다. 사람의 신체 기관을 뜻하는 '눈(目)'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 역시 각각 [눈]과 [눈:]으로 구별 가능하다. 그런데 단어에 나타나는 장음은 어두에서만 나타나며, '거짓말'과 같은 비어두에서는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다.

- ① 장단은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② '말(言)'의 경우 모음 'ㅏ'를 길게 발음한다.
- ③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 ④ '눈(雪)'은 장음이지만 '함박눈'에서의 '눈'은 단음이다.
- ⑤ '거짓말'의 '말'을 길게 발음하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 11

## 음운 변동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굳 + 이 → [구지]  
 ㉡ 값 + 도 → [갑또]  
 ㉢ 팔 + 밥 → [판빳]

- ① ㉠에는 ‘값 + 이 → [가치]’에서처럼 자음의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에는 ‘값 + 는 → [안는]’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에는 ‘닭 + 지 → [닥찌]’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과 ㉡에는 ‘잃 + 지 → [일찌]’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과 ㉢에는 ‘뿔 + 지 → [뽇찌]’에서처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있다.

# 12

## 음운 변동의 유형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음운의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탈락은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첨가는 없던 음운이 덧붙는 현상을 뜻한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 보기 2 ◀

친구와 ㉠같이 ㉡극장에 가던 중,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라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갔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지갑을 건네주셔서 빨리 되 돌아갈 수 있었다.

- ① ㉠: 교체                      ② ㉡: 교체                      ③ ㉢: 축약
- ④ ㉣: 교체                      ⑤ ㉤: 탈락

# 13

음운 변동의 특성

음운의 변동에 대해 학습한 후, <보기 1>에 제시된 단어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보기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이때, 사용한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국 꽃 난 밥 밖 부엌 옷 잎

▶보기 2▶

A	B
국, 난, 밥	꽃, 밖, 부엌, 옷, 잎

- ① 음절 끝의 자음이 겹받침이냐의 여부
- ② 음절 끝의 자음이 탈락하느냐의 여부
- ③ 음절 끝의 자음의 발음이 바뀌느냐의 여부
- ④ 음절 끝의 자음의 발음이 예사소리냐의 여부
- ⑤ 음절 끝의 자음의 발음이 파열음이냐의 여부

# 14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법칙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받침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발음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과 ㉡에 들어갈 발음 원리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자료 수집
  -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오시] 없다.
  - 오솔길이 숲까지[습까지] 연결되어 있다.
  - 팔알이[파다리] 은근하게 씹히는 팔죽이[판죽기] 맛있다.
  - 얹얹이[얹얹기] 알 낳을 자리에 바로 들어가도록 등지에 넣어 둘 밑알을[미다를] 준비하였다.

• 받침의 발음 원리

- (1) 어말 또는 자음 앞: 대표음 [ㄱ, ㄷ, ㅂ]으로 교체하여 발음한다.
- (2)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            )
- (3)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 앞: (            ㉡            )

	㉠	㉡
①	대표음 [ㄱ, ㄷ, ㅂ]으로 교체한 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받침을 탈락시켜 발음한다.
②	대표음 [ㄱ, ㄷ, ㅂ]으로 교체한 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받침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본래 받침의 발음대로 발음한다.
③	받침을 탈락시켜 발음한다.	받침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본래 받침의 발음대로 발음한다.
④	받침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본래 받침의 발음대로 발음한다.	대표음 [ㄱ, ㄷ, ㅂ]으로 교체한 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⑤	받침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본래 받침의 발음대로 발음한다.	받침을 탈락시켜 발음한다.

## 15

## ◉ 지음 동화의 개념 ◉

〈보기〉를 참조하여 제시된 단어에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 동화인지 여부를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특정 음운이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혹은 조음 방식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켜 '동화'라고 한다.

- ① '설 + 날[설:랄]'은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과 동일한 소리인 'ㄹ'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② '겹 + 말[겸말]'은 'ㅂ'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과 동일한 소리인 'ㅁ'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③ '물 + 는[문:는]'은 'ㄷ'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동일한 소리인 'ㄴ'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④ '쪽 + 문[쫘문]'은 'ㄱ'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과 조음 방식이 같은 'ㅇ'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⑤ '말 + 형[마형]'은 'ㄷ'이 'ㅎ'의 영향을 받아 'ㅎ'과 조음 방식이 같은 'ㅌ'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화입니다.

## 16

## ◉ 음운 변동의 유형 ◉

〈보기〉의 ㄱ~ㅁ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ㄱ. 천리마[철리마]
- ㄴ. 앉고[안코]
- ㄷ. 갑옷[가븐]
- ㄹ. 낱아서[나아서]
- ㅁ. 숨이불[숨:니불]

- ① ㄱ과 ㄴ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가 나타난다.
- ② ㄱ과 ㄷ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가 나타난다.
- ③ ㄴ과 ㄹ에는 두 음운이 만나 한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나타난다.
- ④ ㄷ과 ㅁ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가 나타난다.
- ⑤ ㄹ과 ㅁ에는 두 음운이 만나 한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나타난다.



# 17

비음화의 원인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학생 1: 밥물'의 'ㅂ'이 'ㅍ' 앞에서 [ㅍ]으로 발음되어 [ㅍㅂ물]이 되는 것을 비음화라고 설명하는데, 'ㅂ'이 [ㅂ]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없을까? 'ㄴ'도 비음이잖아.

학생 2: '굳는다'의 'ㄷ'은 [ㄴ]이 되고 '눅는다'의 'ㄱ'은 [ㅇ]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봐. 자음 체계표에서 아래 부분을 보면 비음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 있어.

조음 위치 조음 방식	입술소리	잇몸소리	여린입천장소리
파열음	ㅂ	ㅍ	ㅍ
비음	ㅁ	ㄴ	ㅇ

학생 1: 아, 그러니까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을 때, 원래의 ( ㉠ )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 ㉡ )만 바뀌기 때문이구나.

- |   |       |         |
|---|-------|---------|
|   | ㉠     | ㉡       |
| ① | 파열음   | 비음      |
| ② | 입술소리  | 비음      |
| ③ | 조음 위치 | 조음 방식   |
| ④ | 조음 방식 | 조음 위치   |
| ⑤ | 조음 방식 | 여린입천장소리 |

# 18

동화의 종류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한 음이 다른 음을 닮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 한다. 동화는 그것이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ㄱ. 뒤의 음이 앞의 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순행 동화

예) 갈날 → [갈랄](ㄱ + ㄴ → ㄱ + ㄴ)

ㄴ. 앞의 음이 뒤의 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역행 동화

예) 국물 → [궁물](ㄱ + ㅁ → ㅇ + ㅁ)

- ① '밥만 잘 먹어.'의 '밥만'에서는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② '문 닫는 중이다.'의 '닫는'에서는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③ '추우니 실내에 있자.'의 '실내'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④ '강릉에 도착했어.'에서의 '강릉'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생활에 곤란을 겪었다.'에서의 '곤란'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19

## 'ㅣ'모음 역행 동화

〈보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음운 현상에 해당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선생님: 사람에 따라서는 '지팡이'를 [지팽이]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의 단모음 분류표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뒤 음절의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앞 음절의 후설 모음 'ㅏ'를 전설 모음인 'ㅣ'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후설 모음 'ㅏ'와 전설 모음 'ㅣ'를 이어서 발음하는 것보다 전설 모음 'ㅣ'와 전설 모음 'ㅣ'를 이어서 발음하는 것이 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ㅣ'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는데, 이는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혀의 높이 \ 혀의 최고점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의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꺾	ㅡ	ㅓ
중모음		ㅑ	ㅓ	ㅕ	ㅗ
저모음		ㅓ		ㅗ	

- ① '아기'를 [애기]로 발음하는 현상
- ② '어미'를 [에미]로 발음하는 현상
- ③ '보이다'를 [뵈다]로 발음하는 현상
- ④ '뜯기다'를 [띷끼다]로 발음하는 현상
- ⑤ '죽이다'를 [쥬기다]로 발음하는 현상

## 20

음운 변동의 조건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인서: 선생님, 음운 변동을 공부하다 보니,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밭이랑’의 발음은 [반니랑]이 되는데, ‘날날이’의 발음은 왜 [난난니]가 아니라 [난:나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인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가) 앞앞[아팍]/[\*아팍], 젓어미[저더미]/[\*저저미], 흠이불[훈니불]/[\*호치불]

(나) 부엌이[부어키]/[\*부어기], 무릎이[무르피]/[\*무르비], 같이[가치]/[\*간니]

선생님: (가)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가 바뀌고 있지만, (나)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바뀌지 않고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고 있지? ‘흠이불’과 ‘같이’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나)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처럼 뒤에 오는 말이 ( ㉠ )에 따라 ‘밭이랑’과 ‘날날이’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도 달라진다는 것이지.

\*는 잘못된 발음을 나타냄.

- ① 조사나 어미나
- ② 접사나 어근이나
- ③ 자음이나 모음이나
- ④ 실질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나
- ⑤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

## 21

## 음운의 탈락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을 ‘-’ 탈락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 ▶ 보기 ◀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말음 ‘ㄷ’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데 이를 어간 말 ‘으’ 탈락 현상이라 한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치러 봤다.’에서 ‘치러’는 ‘치르- + -어’에서 ‘ㄷ’가 탈락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① 편지를 써서 부쳤다
- ② 김치를 겨우 다 담갔다.
- ③ 이가 아파 잠을 못 잤어.
- ④ 작년보다 키가 더 컸구나.
- ⑤ 그림을 그려 친구에게 주었다.

## 22

## 자음 축약

〈보기〉를 참고할 때, 자음 축약이 나타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어떤 음운이 특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 한다. 음운 변동 중,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 축약이라 한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축약은 주로 자음 축약인데, 자음 축약은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면 축약되어 ‘ㅋ, ㅌ, ㅍ, ㅊ’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① 대답하지 마.
- ② 먹지 않고 있어.
- ③ 만형 덕분에 든든해.
- ④ 건강한 아기를 낳으셨어.
- ⑤ 거기에 아무것도 놓지 마.

# 23

음운 변동의 유형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음운 변동의 유형

	변동 이전		변동 이후	음운 변동 유형
㉠	XaY	→	XbY	교체
㉡	XY	→	XaY	첨가
㉢	XabY	→	XcY	축약
㉣	XaY	→	XY	탈락

- ① ‘물약[물락]’은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옹고[음꼬]’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뜻깊다[뜻깁따]’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꽃히다[꼬치다]’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놓이다[노이다]’는 ㉡,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24

음운의 변동

㉠~㉣의 밑줄 친 말과 동일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말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의 음운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거센소리되기, ‘ㅎ’ 탈락 등이 있다.

㉠ 잠깐 사이에 밤물[밤물]이 넘쳐흘렀다.  
 ㉡ 경주는 오랫동안 신라[실라]의 수도였다.  
 ㉢ 동생은 굳이[구지] 자기가 하겠다며 나섰다.  
 ㉣ 삼촌은 그 똥댈[만:댈] 돈을 모두 써 버렸다.  
 ㉤ 누나는 목소리에 감정을 넣어[너어] 책을 읽었다.

- ① ㉠: 논일, 속는다                      ② ㉡: 난로, 잡는다
- ③ ㉢: 붙이다, 굳히다                  ④ ㉣: 좋은, 옹고
- ⑤ ㉤: 꿇이다, 잡히다

## 25

음운의 변동

〈보기〉의 ㉠, ㉡이 모두 나타나는 말이 아닌 것은?

▶ 보기 ◀

‘의자에 앉고 싶다.’의 ‘앉고’는 두 가지의 음운 변동을 보여 준다. 먼저 ㉠받침 자음 중 일부가 탈락하여 ‘앉고’가 [안고]로 바뀐다. 그리고 ㉡된소리되기로 인해 [안꼬]로 바뀐다.

- ① 영호는 달장 안을 청소했다.
- ② 농부는 흙과 비료를 섞었다.
- ③ 강아지가 바닥을 활게 두었다.
- ④ 그가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
- ⑤ 이 신발은 품질도 좋고 값도 싸다.

## 26

음운의 변동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ㅂ, ㄷ, ㄱ’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 ㄴ, ㅇ’으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현상
- ‘ㄴ’ 첨가: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는 현상

- ① ‘천리마[첼리마]’에서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나타난다.
- ② ‘청량리[청냥니]’에서는 유음화와 ‘ㄴ’ 첨가가 나타난다.
- ③ ‘내복약[내:봉낙]’에서는 ‘ㄴ’ 첨가와 비음화가 나타난다.
- ④ ‘맨입[맨닙]’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나타난다.
- ⑤ ‘앞마당[암마당]’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유음화가 나타난다.



## 29

##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법

〈보기〉는 ‘ㅎ’과 관련되는 표준 발음법의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을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ㅎ(ㅈ, ㅊ)’ 뒤에 ‘ㄱ, ㄷ,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ㅿ]로 발음한다.
- ㉡ 받침 ‘ㄱ(ㄷ), ㄷ, ㅂ(ㅃ), ㅅ(ㅆ)’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ㅿ, ㅿ]로 발음한다.
- ㉢ ‘ㅎ(ㅈ, ㅊ)’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 ㉣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
- ㉤ ‘ㅎ(ㅈ, ㅊ)’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①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는다.’의 ‘낳고’의 발음은 ㉠을 적용하여 [낳:코]가 된다.
- ② ‘촛불을 밝혀 놓다.’의 ‘밝혀’의 발음은 ㉡을 적용하여 [발켜]가 된다.
- ③ ‘나는 어둠이 싫소.’의 ‘싫소’의 발음은 ㉢을 적용하여 [실쏘]가 된다.
- ④ ‘집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늘고 있다.’의 ‘낳는’의 발음은 ㉣을 적용하여 [낳:는]이 된다.
- ⑤ ‘간밤에 눈이 많이 쌓였다.’의 ‘쌓였다’의 발음은 ㉤을 적용하여 [싸연따]가 된다.



## 음운 정답 및 해설

01 언어의 특성 답 ⑤

<보기>의 ㄹ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뜻과 소리의 대응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사물이나 개념이 필연적인 이유 없이 언어마다 다른 음성으로 대응되거나 한 언어 안에서 방언마다 다른 음성으로 대응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언어의 분절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언어의 체계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다.

02 언어의 특성 답 ④

<보기>의 (가), (나), (다)는 모두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 설명이다. 언어의 창조성이란 한정된 언어 자원을 가지고 무한히 새로운 언어 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 ②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 ③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 ⑤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03 모음 체계 답 ④

‘ㅣ’와 ‘ㅢ’는 모두 전설 모음에 속하므로 혀의 최고점 위치에는 변동이 없다. ‘ㅣ’는 평순 모음, ‘ㅢ’는 원순 모음이므로 ‘ㅣ’는 ‘ㅢ’를 발음할 때보다 입술을 평평하게 하면 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ㅢ’는 고모음, ‘ㅢ’는 중모음이므로 적절하다.
- ② ‘ㅣ’는 저모음, ‘ㅣ’는 중모음이므로 적절하다.
- ③ ‘ㅢ’는 원순 모음, ‘ㅡ’는 평순 모음이므로 적절하다.
- ⑤ ‘ㄴ’는 후설 모음, ‘ㅣ’는 전설 모음이므로 적절하다.

04 음운의 변동 답 ③

㉠의 ‘막일 → [막닐]’의 과정에서는 앞말의 자음 ‘ㄱ’과 뒷말의 모음 ‘ㅣ’ 사이에 새로운 음운 ‘ㄴ’이 ‘첨가(㉠)’되었다. ㉡의 [막닐] → [망닐]의 과정에서는 ‘ㄴ’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의 ‘값하다 → [갑하다]’의 과정에서는 ‘ㄱ’ 중 ‘ㅅ’이 ‘탈락(㉢)’하였으며, ㉣의 [갑하다] → [가파다]의 과정에서는 ‘ㅂ’과 ‘ㅎ’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인 ‘ㅍ’으로 ‘축약(㉣)’되었다.

05 음운의 교체 답 ④

‘낫빰’의 경우 ㉠이 적용되어 [낫빰]이 된 후 ㉡이 적용되어 [낫뵤]이 된다. 따라서 ㉠과 ㉡만이 일어나는 예이다. ㉢은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낫빰[낫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임만’의 경우 ㉠이 적용되어 [임만]이 된 후 ㉡이 적용되어 [임뵤]이 된다. 따라서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이다.
- ② ‘웃도’의 경우 ㉠이 적용되어 [웃도]가 된 후 ㉡이 적용되어 [웃뵤]가 된다. 따라서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이다.
- ③ ‘줄넘기’의 경우 ㉡이 적용되어 [줄뵤기]가 된 후 ㉢이 적용되어 [줄뵤끼]가 된다. 따라서 ㉡과 ㉢이 모두 일어나는 예이다.
- ⑤ ‘살살이’의 경우 ㉠이 적용되어 [살사티]가 된 후 ㉡이 적용되어 [살사치]가 되고, 여기에 ㉢이 적용되어 [살싸치]가 된다. 따라서 ㉠, ㉡, ㉢이 모두 일어나는 예이다.

06 모음의 변동 답 ⑤

‘ㅍ- + -어서’가 [ㅍ:서]가 되는 것은 ‘ㅣ’와 ‘ㅢ’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ㅢ’가 된 것이므로 ㉠이 일어나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어간의 단모음 ‘ㄴ’과 어미의 단모음 ‘ㅏ’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ㅏ’가 되었다.
- ② 어간의 단모음 ‘ㅏ’와 어미의 단모음 ‘ㅏ’가 만나면서 하나가 탈락되었다.
- ③ 어간의 단모음 ‘ㅡ’가 어미의 단모음 ‘ㅣ’를 만나면서 ‘ㅡ’가 탈락되었다.
- ④ 어간의 단모음 ‘ㅣ’와 어미의 단모음 ‘ㅣ’가 만나면서 ‘ㅣ’가 ‘ㅢ’로 되었으므로 반모음 [j]가 첨가된 것이다.

07 언어의 특성 답 ②

‘나무’는 ‘소나무’의 상위어로, ‘나무’가 ‘소나무’에 비해 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반대로 하위어인 ‘소나무’는 ‘나무’에 비해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은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의 형식이 길어진 경우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복합어는 단어보다 복잡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단어 및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언어의 형식도 길어진다.



## 12 음운 변동의 유형 답 ⑤

‘다행히도’는 글자 그대로 [다행히도]로 발음되므로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같이’는 [가치]로 발음되므로, ‘ㅌ’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 ② ‘극장[극짱]’에서는 ‘ㅈ’이 ‘ㄱ’ 뒤에서 ‘ㅉ’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 ③ ‘놓고’는 [노코]로 발음되므로, ‘ㅎ’과 ‘ㄱ’이 합쳐져 ‘ㅋ’으로 바뀌는 축약이 일어난 것이다.
- ④ ‘갑자기[갑짜기]’에서는 ‘ㅈ’이 ‘ㅂ’ 뒤에서 ‘ㅉ’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 13 음운 변동의 특성 답 ③

〈보기 1〉에 제시된 단어들은 다양한 종성을 가지고 있다. 〈보기 2〉에서 A의 단어들은 종성이 ‘ㄱ, ㄷ, ㅂ’으로 종성의 발음이 바뀌지 않으나, B의 단어들은 종성이 ‘ㄷ, ㄱ, ㅋ, ㅌ, ㅍ’으로 종성의 발음이 각각 ‘ㄷ, ㄱ, ㄱ, ㄷ, ㅂ’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A와 B는 음절 끝 자음의 발음이 바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두고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A의 단어들과 B의 단어들 모두 겹받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② A와 B의 단어들 모두 음절 끝의 자음이 탈락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④ A에 속한 단어들의 음절 끝 자음의 발음은 모두 예사소리이고, B에 속한 단어들 역시 음절 끝 자음의 발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모두 예사소리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⑤ A와 B의 단어들 모두 음절 끝의 자음이 파열음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14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 법칙 답 ②

① 실질 형태소란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외의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한 예를 〈보기〉에서 찾으면 ‘팔알[파달]’과 ‘밀알[미달]’이 있다. 이 예를 살펴보면, ‘ㅌ’이 대표음 ‘ㄷ’으로 교체된 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발음됨을 알 수 있다.

㉔ 문법 형태소란 실질 형태소의 뒤에 붙어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 접사가 이에 해당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외의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와 결합한 예를 〈보기〉에서 찾으면 ‘웃이[오시]’, ‘암탉이[암탈기]’가 있다. 이 예를 살펴보면, 받침이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발음됨을 알 수 있다.

## 15 자음 동화의 개념 답 ⑤

‘만형’이 [마형]으로 발음되는 것은 ‘ㄷ’과 ‘ㅎ’이 만나 제3의 음운인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⑤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화의 예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설날’의 ‘ㄴ’은 인접한 음운인 ‘ㄹ’의 영향으로 동일한 소리인 ‘ㄹ’로 동화된다.
- ② ‘곁말’의 ‘ㅂ’은 인접한 음운인 ‘ㅁ’의 영향으로 동일한 소리인 ‘ㅁ’으로 동화된다.
- ③ ‘묻는’의 ‘ㄷ’은 인접한 음운인 ‘ㄴ’의 영향으로 동일한 소리인 ‘ㄴ’으로 동화된다.
- ④ ‘쪽문’의 ‘ㄱ’은 인접한 음운인 ‘ㅁ’의 영향으로 ‘ㅁ’과 조음 방식이 같은, 즉 비음인 ‘ㅇ’으로 동화된다.

## 16 음운 변동의 유형 답 ②

ㄱ. ‘천리마[철리마]’에서 ‘천’의 ‘ㄴ’은 ‘리’의 ‘ㄹ’을 만나 ‘ㄹ’이 되는 유음화를 겪는다. 즉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에 해당한다.

ㄷ. ‘갑옷[가븐]’에서 ‘옷’의 ‘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바뀐다. 즉 교체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ㄴ. ‘알고[안코]’에서는 앞 음절 말의 ‘ㅎ’과 뒤 음절의 ‘ㄱ’이 합쳐져 ‘ㅋ’이 된다. 즉 축약에 해당한다.

ㄹ. ‘낱아서[나아서]’에서 ‘ㅎ’은 탈락하여 발음이 되지 않는다. 즉 탈락에 해당한다.

ㅁ. ‘숨이불[숨:니불]’은 본래 없던 음운 ‘ㄴ’이 덧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즉 첨가에 해당한다.

## 17 비음화의 원인 답 ③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뀌는 동화이다. 〈보기〉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밤풀[밤뿔]’, ‘굳는다[군는다]’, ‘눅는다[농는다]’는 각각 ‘ㅂ, ㄷ, ㄱ’이 ‘ㅁ, ㄴ, ㄴ’ 앞에서 ‘ㅁ, ㄴ, ㅇ’으로 바뀐다. 이를 제시된 자음 분류표에서 찾아보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음화는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을 때, 본래의 자음이 발음되

는 위치(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조음 방식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18 동화의 종류 답 ⑤

‘곤란’은 [골:란]으로 발음된다. 즉 ‘ㄴ + ㄹ → ㄹ + ㄹ’이 되므로 뒤 자음의 영향을 받아 앞 자음이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밥만’은 [밤만]으로 발음되므로 ‘ㅂ + ㅁ → ㅁ + ㅁ’의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② ‘답는’은 [단는]으로 발음되므로 ‘ㄷ + ㄴ → ㄴ + ㄴ’의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③ ‘실내’는 [실래]로 발음되므로 ‘ㄹ + ㄴ → ㄹ + ㄹ’의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④ ‘강릉’은 [강릉]으로 발음되므로 ‘ㅇ + ㄹ → ㅇ + ㄴ’의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19 ‘ㅣ’ 모음 역행 동화 답 ③

‘보이다’를 [뵈다]로 발음하는 현상은 ‘ㅛ + ㅣ → ㅟ’에 따른 모음 축약이지 ‘ㅣ’ 모음 역행 동화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ㅣ’ 모음의 영향으로 후설 모음 ‘ㅓ’를 전설 모음 ‘ㅑ’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 ② ‘ㅣ’ 모음의 영향으로 후설 모음 ‘ㅕ’를 전설 모음 ‘ㅑ’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 ④ ‘ㅣ’ 모음의 영향으로 후설 모음 ‘ㅡ’를 전설 모음 ‘ㅣ’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 ⑤ ‘ㅣ’ 모음의 영향으로 후설 모음 ‘ㅜ’를 전설 모음 ‘ㅑ’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 20 음운 변동의 조건 답 ④

(가)에서는 뒤에 오는 말이 각각 ‘앞, 어미, 이불’로 모두 어휘적인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뒤에 오는 말이 각각 조사 ‘이’, 접미사 ‘-이’로 문법적인 뜻을 가진 문법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 뒤에 오는 말은 어근으로 조사 또는 어미가 아니고 (나)에서 뒤에 오는 말은 조사와 접사가 섞여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② (가)에서 뒤에 오는 말은 모두 어근이지만, (나)에서 뒤에 오는 말은 조사와 접사가 섞여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③ (가)와 (나) 모두 뒤에 오는 말이 모음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⑤ (가)에서 뒤에 오는 말은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ㅑ, ㅣ’가 섞여 있고, (나)에서 뒤에 오는 말은 모두 음성 모음 ‘ㅣ’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21 음운의 탈락 답 ⑤

‘그리다’의 ‘그리-’가 ‘-어’와 만나 ‘그려’가 되는 것은 어간의 말음 ‘ㅣ’와 어미 ‘ㄴ’이 만나 ‘ㄹ’로 된 것이므로, 어간 말 ‘ㅡ’ 탈락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쓰- + -어서’가 ‘써서’가 될 때 어간 ‘쓰-’의 말음 ‘ㅡ’가 탈락하였다.
- ② ‘답그- + -았-’이 ‘답갔-’이 될 때 어간 ‘답그-’의 말음 ‘ㅡ’가 탈락하였다.
- ③ ‘아프- + -아’가 ‘아파’가 될 때 어간 ‘아프-’의 말음 ‘ㅡ’가 탈락하였다.
- ④ ‘크- + -었-’이 ‘켰-’이 될 때 어간 ‘크-’의 말음 ‘ㅡ’가 탈락하였다.

### 22 자음 축약 답 ④

‘낳으셨어[나으셔씨]’에서는 ‘ㅎ’이 탈락되었으므로 자음 축약이 아니다. 참고로 ‘ㅎ’ 탈락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혹은 비음,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대답하지[대:다파지]’에서 ‘ㅂ + ㅎ → ㅍ’으로 자음 축약이 나타난다.
- ② ‘않고[안코]’에서 ‘ㅎ + ㄱ → ㅋ’으로 자음 축약이 나타난다.
- ③ ‘만형[마형]’에서 ‘ㄷ + ㅎ → ㅌ’으로 자음 축약이 나타난다.
- ⑤ ‘농지[노치]’에서 ‘ㅎ + ㅅ → ㅆ’으로 자음 축약이 나타난다.

### 23 음운 변동의 유형 답 ②

‘을고[을꼬]’에서는 겹받침 ‘ㄱ’ 중 ‘ㄹ’이 탈락하는 현상(㉠)과 ‘표’이 ‘ㅂ’으로 바뀌는 교체(㉡), 그리고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오답 피하기**

- ① ‘물약[물락]’에서는 ‘ㄴ’이 첨가되는 현상(㉣)과 ‘ㄴ’이 ‘ㄹ’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 ③ ‘뜻깊다[뜰깁따]’에서는 음절 끝에서 ‘ㅅ’, ‘ㅍ’이 각각 ‘ㄷ’, ‘ㅂ’으로 바뀌는 교체(㉑)와 초성의 예사소리 ‘ㄱ’, ‘ㄷ’이 각각 된소리 ‘ㄱ’, ‘ㄷ’으로 바뀌는 교체(㉒)가 일어난다.
- ④ ‘꽃하다[꼬치다]’에서는 ‘ㅅ’과 ‘ㅎ’이 ‘ㅈ’으로 축약되는 현상(㉓)이 일어난다.
- ⑤ ‘놓이다[노이다]’에서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㉔)이 일어난다.

## 24 음운의 변동 답 ③

㉑의 ‘굳이’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받모음 ‘ㅣ [j]’로 시작되는 문법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에 따라 [구지]로 발음된다. ㉓의 ‘붙이다’와 ‘굳하다’ 역시 구개음화에 따라 각각 [부치다], [구치다]로 발음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㉑의 ‘밤물’이 [밤물]로 발음되는 것은 파열음 ‘ㅂ, ㄷ,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 ㄴ’에 동화되어 비음 ‘ㅁ, 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따른 것이다. ‘속는다’가 [송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따른 것이지만, ‘논일’이 [논닐]로 발음되는 것은 뒷말이 모음 ‘ㅣ’나 받모음 ‘ㅣ [j]’로 시작할 때 ‘ㄴ’이 첨가되는 ‘ㄴ’ 첨가에 따른 것이다.
- ② ㉑의 ‘신라’가 [실라]로 발음되는 것은 ‘ㄴ’과 ‘ㄹ’이 만났을 때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에 따른 것이다. ‘난로’가 [날:로]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에 따른 것이지만, ‘잡는다’가 [잡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따른 것이다.
- ④ ㉑의 ‘많던’이 [만:턴]으로 발음되는 것은 ‘ㄱ, ㄷ, ㅂ, ㅅ’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것이다. ‘옹고’가 [올코]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것이지만, ‘좋은’이 [조:은]으로 발음되는 것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또는 비음,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ㅎ’ 탈락에 따른 것이다.
- ⑤ ㉑의 ‘넣어’가 [너어]로 발음되는 것은 ‘ㅎ’ 탈락에 따른 것이다. ‘끓이다’가 [꼬리다]로 발음되는 것은 ‘ㅎ’ 탈락에 따른 것이지만, ‘잡히다’가 [자피다]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것이다.

## 25 음운의 변동 답 ④

④의 ‘옹지’는 [올치]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 + ㅅ → ㅈ’의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옹지’의 발음 과정에는 ㉑과 ㉒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닭장’은 받침 자음 중 일부가 탈락하여 [닥장]으로 바뀐 후

된소리되기로 인해 [닥짱]으로 발음된다.

- ② ‘옹과’는 받침 자음 중 일부가 탈락하여 [옹과]로 바뀐 후 된소리되기로 인해 [옹꽂]로 발음된다.
- ③ ‘옹게’는 받침 자음 중 일부가 탈락하여 [옹게]로 바뀐 후 된소리되기로 인해 [옹께]로 발음된다.
- ⑤ ‘값도’는 받침 자음 중 일부가 탈락하여 [갑도]로 바뀐 후 된소리되기로 인해 [갑또]로 발음된다.

## 26 음운의 변동 답 ③

‘내복약’에서는 [내:복낙]으로 ‘ㄴ’ 첨가를 겪은 후, ‘ㄴ’의 영향으로 [내:봉낙]으로 비음화된다.

### 오답 피하기

①에서는 유음화, ②에서는 비음화, ④에서는 ‘ㄴ’ 첨가, ⑤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나타난다.

## 27 음운의 변동 답 ⑤

‘웃고름’ → [온고름]에서는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는데, 이는 장애음(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음절 말에서 파열음 예사소리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후 [온고름] → [온꼬름]에서는 된소리되기(경음화)가 적용되어 ‘ㄷ + ㄱ → ㄷ + ㄱ’이 된 것이다.

### 오답 피하기

‘웃고름’이 [온꼬름]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ㄴ, ㅁ, ㅇ), 유음(ㄹ), 센입천장소리(ㅅ, ㅊ)와 관련이 없으며, 마찰음(ㅅ, ㅆ)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 또한 경음화와 관련된 소리는 된소리이지 거센소리가 아니다.

## 28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법 답 ④

㉑에서 어간 받침 ‘ㄴ,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했으므로, 이는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㉑에서 ‘ㅎ’이 ‘ㄱ, ㄷ, ㅈ’과 합쳐져 [ㅋ, ㅌ, ㅊ]으로 발음된다고 했으므로 이는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 ② ㉑에서 구개음이 아닌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와 결합할 때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된다고 했으므로 이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 ③ ㉑에서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발음된다고 했으므로 이는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에서 자음으로 끝난 앞 음절에 ‘이, 야, 여, 요, 유’가 결합할 때 ‘ㄴ’ 음이 첨가된다고 했으므로 이는 ‘ㄴ’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 29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법

답 ①

㉠에서 ‘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하는 경우에 두 소리를 합쳐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낱고’는 ㉠에 따라 [나:코]로 발음된다.

### 오답 피하기

- ② ㉠에서 받침 ‘ㄱ(ㄱ), ㄷ(ㄷ), ㅈ(ㅈ)’이 ‘ㅎ’과 결합하는 경우에 두 소리를 합쳐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밝혀’는 ㉠에 따라 [발켜]로 발음된다.
- ③ ㉠에서 ‘ㅎ(ㅎ, ㅈ)’ 뒤에 ‘ㅅ’이 결합하는 경우에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싫소’는 ㉠에 따라 [실쏘]로 발음된다.
- ④ ㉠에서 ‘ㅎ’ 뒤에 ‘ㄴ’이 결합하는 경우에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낱는’은 ㉠에 따라 [난:는]으로 발음된다.
- ⑤ ㉠에서 ‘ㅎ(ㅎ, ㅈ)’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쌍였다’는 ㉠에 따라 먼저 [쌍였다]가 되고 음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쌍연다]가 된 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쌍연따]로 발음된다.